

대구로 가는 길

차는 정각이 지나도 좀처럼 떠나지를 못했다. 점점 더해 가는 무슨 속임이나 받은 것 같은 마음에 웅숭스렸던 고개를 획 드니, 유리창에 비친 아침해의 찌르는 듯한 햇살이 눈에 와 딱 쏘였다.

시계를 본다. 일곱 시 사십 분—— 일 초도 어김이 없이 떠난다는 바람에 조반도 설치고 혈레벌떡 뛰어 달려와 근 한 시간이나 이려고 우두커니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다.

창 밖 거리에는 자욱했던 새벽 안개가 걷히고 큰길가 상점의 유리창이 아침해를 되받아 반짝거린다. 도시락 보따리를 허리에 찬 허접스레한 행인들밖에 보이지 않던 거리에, 뻥즈레하게 멋을 낸 청년 남녀들이 분주스레 오고 가고 거리는 일제히 눈을 뜬 듯 들끓기 시작했다.

어린 신문 장수 빵 장수 과자 장수 담배 장수들이 버스에 매어달리며

“아저씨 빵 사세요.”

“아저씨 담배 사세요.”

하며 치근치근하게 졸라대었다.

동행의 정씨가 껌을 사서 나에게 내어밀었다. 그 때다.

“뭐이 어때구 어때, 고래 고런 뱀이 어디메 있소!”

하는 엄청나게 큰 남자의 노성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올라탔는지 거의 비었던 차 안이 사람으로 꽉 찼다. 좁은 통로에까지 낮은 천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구부린 승객들이 박혀 있는데, 아직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승강구에서 밀고 떠다박지르고 아우성들이다.

앞에서 석 줄짜 창 옆에 자리를 잡은 나에게는 모로 보이는 자리에서 일어난 소동이 환히 보였다.

희끄무레하게 퇴색한 낡은 잠바를 입은 조그만 사내가 독이 잔뜩 오른 얼굴로 안차게 앉아 있는 앞에, 무지스러운 몸집을 가진 차림만 큼은 제법 그럴듯한 중년 남자가 엄지손가락에 굵다란 금반지를 낀 손으로 마구 샷대질을 하여 가며 욕대기는 것이었다.

“여보 고래 다동타부(自動車部) 사람이 손님 앉을 자리를 가로태른 어떠칸단 말시오. 일어나오 어서.”

눈을 부라리고 이마에 땀대를 세우는데, 딱 벌린 입안에 누런 이가 가득 찼다. 반은 금이요 반은 제 이인 모양인데 보통 사람보다 이들과 이가 유난히 커선지 이의 수효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다. 무서운 얼굴이다.

조그만 사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만 있다.

“어서 안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쫓쫓.”

앞이 막혀서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

금이빨 신사는 둘레를 돌아보며

“고래 다동타부 승무원이란 덕업을 니용(利用)해서 이런 월권 행위를 하는고래.”

손을 마구 휘젓는다. 그 손이 라켓만한 넓이다. 딱 벌린 어깨가 오종종한 상대편과 마주서서 엄청난 중압감을 가졌다.

“내가 꼭 앉고퍼 그라는 게 아니라고. 이런 놈들이 있어 사회의 질서(秩序)가 문란해더서 그러는 게디.”

금이빨 신사는 이제 온 차 안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당당히 선언하였다.

“여보 이러다간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나 양보허슈.”

내 앞의 자리에 앉은 신사가 온후한 구조로 웅쳐 물고 앉아 있는 사내에게 이렇게 권했다.

퐁퐁 뭉쳤던 사나이의 얼굴이 찌그러졌다. 몹시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지는 오늘 비번인데 형수가 아이를 데불고 대구 간다 캐서 아침도 안 묵고 나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되 다동타부에 틈이 있다 해서라므니 놈들은 못 먹구 기달리는데 헐 것 다 허구 나오구.”

금이빨 신사는 노발대발하며 이번에는 그 큼직한 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움켜잡는다.

조그만 사내는 양칼지게 몸짓으로 상대방의 손을 물리친다.

“웬일이예요? 어서들 좀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문밖에서는 혼잡이 대단한 모양이다.

“다아—— 빨리 일어나라우, 당신 하나 때문에 모두가 야단이니.”

금이빨 신사의 손은 또 상대방의 어깨에 뻗어졌다. 조그만 사내는 울상을 하며 하는 수 없이 일어나 사람들 틈을 헤치며 차 밖으로 내려갔다.

금이빨 신사는 그 자리에 털썩 걸터앉아 손끝을 툭툭 통겨 먼지를 털고 두 다리를 뚝 벌리고 앉았다.

길이 트여 밀렸던 사람이 구겨박질러진 표정으로 와아 올라왔다.

마지막으로 누런 잠바에 검은 안경을 쓴 운전사가 더러운 실장갑을 끼며 운전석에 와 앉는다.

문이 닫히고 엔진이 툼툼거리고 이윽고 비로소 커다란 은빛 차체

는 털거덩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만원의 차 안은 그런대로 차차 자리가 잡혀 왔다. 사람들의 시선은 금이빨 신사를 감도는 모양이다.

금이빨 신사는 손가방 위에 두 손을 얹고 앉았는데, 팔을 오므리지를 않아 한쪽 팔꿈치로 옆에 앉은 단정한 중년 신사의 가슴을 누르는 격이 되고 있었다.

회색 점잖은 넥타이를 맨 옆에 앉은 신사는 말쑥하게 면도를 한 포리프레한 뺨을 반쯤 보이며 단정히 앞만 보고 앉아 있는데, 금이빨 신사는 옆의 신사의 가슴을 누른 쪽 팔은 그냥 두고 다른편 손으로 콧구멍을 후볐다, 콧구멍을 찌셨다 한다. 광대뼈가 푹 볼그러진 얼굴에 실룩하게 눈이 솟고 그 술한 이들은 두껍고 큰 입술로 비쳐 나와, 그 운둔한 옆모습에는 아까 그 자동차부 사람을 육대기던 위엄은 보이지 않는다.

콧구멍을 찌시면서 그 솟은 눈초리는 야비한 호기심을 품은 채 자꾸만 통로를 격한 옆자리로 가는데, 거기에는 머리를 야단스럽게 지저 불인 이십칠팔 세 가량 되는 여인이 그 시선을 유린하는 것에 꽤 감이나 가지듯, 지나치게 안면 근육을 움직이며 낙화생을 먹고 있었다.

빨갭게 칠한 입술은 꽤 귀염성스러운데 필요 이상으로 움직여 심술궂은 인상을 주고 쌍꺼풀진 눈도 이글이글하였으나 맑지를 못하다.

우뚝 솟은 코언저리에 주근깨가 끼고 붉은 프린트 간단복 짧은 소매에서 내려진 동그란 팔은 꺼칠꺼칠하고 부엌에 때까지 떠 있다.

턱을 지켜 두어깨 사이에 목을 파묻고 배를 쑥 내어밀고 남자같이 두 다리를 뚝 벌리고 앉아, 시롱시롱하면서 낙화생을 우기적거리는 그 여인은 애초부터 여러 사람의 시선을 끌었으나, 그 중에도 제일 열심히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 금이빨 신사와 또 한 사람 바로 내 옆

줄에 얹은 검은 치마에 흰 옥양목 적삼을 입은 중년 부인이다. 머리를 반즈레하게 쓰다듬고 요즘에는 보기 드문 달걀만한 ‘까미 머리’, 짧은 치마에 양말, 흰 고무신을 신었다. 그녀는 앞의 의자등을 한손으로 꼭 누르고 비상하게 눈을 뺏작거리며, 무슨 미끼나 노리듯 붉은 간단복의 그 여인을 삼킬 듯이 노려보는 것이었다.

붉은 간단복 여인 옆에는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른 촌 할아버지가 동정있이 맞지 않은 구즈레한 무명 두루마기를 걸고 어리둥절하고 앉아 있고, 그 뒷줄에는 머리를 옆으로 가르고 감색 사지 더블을 입은 청년과 올리브색 치마에 흰 수저고리를 입은 소녀가 나란히 앉아 있다. 별로 말도 없이 잠잠히 앉아 있는데 소녀는 손수건을 폈다 개켰다 하며 가끔 청년을 쳐다본다. 젊은 아름다운 얼굴이다.

오십 명이 넘을 듯한 승객이다. 뒤에서도 떠들썩은 하지만 그저 승객(乘客)이란 명칭(名稱)으로 통일될 뿐 별 인상이 없다.

차는 제법 경쾌하게 달린다. 창 밖을 보니 개엿던 하늘에 안개 같은 구름이 덮여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비가 오네.”

“큰일났어!”

이런 소리가 예서 제서 일어났다. 급용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대구에 도착하는 길로 즉시 일을 보러 다녀야 될 처지라 비가 내린다는 것은 타격이었다. 속으로 혀를 차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드르륵 텅 하며 멈춘다. 정류장도 아닌 밭 가운데 신작로 위이다.

차장이 뼈격 문을 열어 길 위에 섰던 낡은 중절모를 쓴 촌부자 한 사람을 태웠다.

그렇지 않아도 만원이다. 짐 보따리 같은 데 앉아 그럭저럭 안정되었던 차 안이 또 한참 뒤숭숭해졌다.

빗발이 꽤 굵어져 간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줄을 죽죽 긋고 떨어졌다.

십 분도 못 달려서 또 차가 덜거덩 멈추었다. 동시에 나는 아까의

그 큰 노성을 또 들었다.

“이런 쌍놈들 같으니, 사람을 무슨 쓰레긴 줄 아나, 응? 덩거당도 아닌 데서 사람을 태우구 남생이두 분수가 있다. 안 돼, 못 해.”

금이빨 신사가 얼굴을 주추광대를 만들고 대호령을 하는 것이었다. 차장이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문을 열려는데

“못 해, 여보 운던사 어서 가시라우.”

하고 그 무지무지 큰 음성을 높인다.

“한 시간이나 늦게 떠나서 또 다꾸 이렇게 디체(遲滯)를 하든 어떡 해!”

“원 태울 자리가 있어야지.”

이런 불평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자 운전사 낭반 가십세다.”

운전사는 더 버틸 용기가 없었는지 손을 든 사람을 길 위에다 남겨 두고 또 차를 달리기 시작했다.

금이빨 신사의 의분은 그것만으로 풀려지지 않는 모양이다. 침방울을 툭툭 튀기며

“탐 다동타부 놈들의 무택임이란 말할 수가 없시요, 돈두 도티만 발타(發車) 시간부터 사람이 타던 말던 시간이 되든 떠나는 게 덩말이다. 고래 한 시간 이상이나 늦어두 만원이 될 때꺼덩 떠나딜 앓으니 쫓쫓.”

말을 붙이게 된 옆의 회색 넥타이 신사는 그저 어정쩡한 얼굴을 한다.

“고래두 모달라 덩거당두 아닌 길 위에서 마구 사람을 태우니. 이 건 운던사의 부수입이라우, 순던한 암생이디요.”

잡담들이 잠깐 끊어졌다. 금이빨 신사의 말이 음성도 컸거니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다.

차장은 딱딱한 표정으로 창 밖을 보고 있고, 운전사는 정면을 노린 채 핸들을 돌려 크게 커브를 틀러 하였다.

그 때 우리들은 이상한 충격을 받아 한쪽으로 와아 쓸렸다. 아찔하여져 본능적으로 앞의 의자의 등을 쥐었을 때 차는 한 번 건드렁하고 그 자리에 서 버렸다.

운전사와 차장이 재빨리 밖으로 뛰어내린 후 경악에서 깨인 승객들은 일제히 떠들기 시작했다.

“고장인가 봐.”

“큰일났구먼.”

“오늘 일은 다 틀렸다.”

하고들 떠드는데 길 위에서 또 그 큰 노성이 들려왔다. 금이빨 신사가 운전사 뒤를 쫓아 내린 모양이다.

“이런 도둑놈들 같으니, 고래 다른 고당 같은몬 모르되 바퀴가 빠더 나가다니, 고래 아팀에 검사는 뭐 때문에 받았단 말이요. 뭐? 뭐? 부속품 둔비를 안해 왔다구? 놈을 오두 가두 못하게 길가에 세워 놓구 어떡할 닥덩이요?”

“바퀴가 빠졌다? 큰일날 뻔했군!”

모두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와아하고 차에서 내린다.

운전사가 땀을 흘리며 나사못을 박고 있다. 비는 약간 멎었으나 음산하다.

“안 마두?”

금이빨 신사가 호령을 한다. 운전사는 땅바닥에 덜컹 앉아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를 더듬었다. 좀처럼 수리가 될 것 같지 않다.

나는 실망하여 차 위로 도로 올라갔다. 바깥에서는 한참 떠들썩하더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에이 운수 더럽다!”

붉은 간단복의 여인이 내던지듯 말하고 금이빨 신사에게

“우짜기로 했지요?”

하고 묻는다. 경상도 사투리에 표준어가 섞인 애교 있는 말투다.

“턴에 고낙한 무택임한 놈들이 고래 부속품 둔비가 없어 타당이 디

금 택시를 타구 부산으로 가디로 갔다오.”

“손해 배상 물어야겠네, 시간대로 도착해야 오늘 일보고 내일 아침차로 떠나지. 그러지 못하면 또 하루 잡아야 되잖소? 객지 하루 비용이 얼마라꼬.”

회색 넥타이의 신사는 아무 말 없었으나, 두손을 양복 주머니에 찌른 채 기지개를 켜는 듯한 자세를 한 것을 보면 그 여인 못지않게 초조해 하는 것이 완연하다.

붉은 간단복의 여인은 보따리 속에서 신문지 뭉치를 꺼내더니 무릎 위에서 그것을 벌렸다. 김으로 찐 커다란 주먹밥이다.

“아침이 너무 일러서 밥을 몬 묵고 와서.”

그녀는 혼잣말같이 중얼거리며 한 개를 들어

“항아부지요 자시이소.”

하며 옆에 앉은 노인에게 내어민다. 촌 할아버지는 겸연쩍은 얼굴로 그래도 그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으로 그것을 받아, 이가 하나도 없는 입으로 우물거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묵어야 되잖소?”

여인이 입에 가득 밥을 넣은 채 말한다.

“하모!”

촌 할아버지가 맞장구를 쳤다.

“탐 둔비 달 해 가지구 왔고래.”

금이빨 신사가 이를 모조리 드러내어 웃는다.

“당신한테 즐끼이 없소.”

여인이 투명스럽게 말하고 모로 돌아앉았다.

또 비가 뿌리기 시작했다. 여지껏 보이지 않던 젊은 청년과 소녀가 차 위로 올라왔다. 소녀는 새하얀 손수건을 머리에 얹어 비를 가리려 한 모양이었으나 상기된 얼굴을 둘러싼 검은 머리끝과 긴 속눈썹에 이슬이 맺혀 있다. 그것이 더욱 도톰한 귀염성스러운 얼굴을 싱싱해 보이게 한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여인은 밥뭉치를 그들 앞에 쑥 내어밀었다.
“하나 드이소.”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의아스러운 듯 그를 쳐다보았다.

“아따 이 처자 연애도 배가 고프른 우찌 하요, 한 개 드이소.”

소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가 곧 귀뿌리까지 빨개졌다. 청년
이 살기를 띄며 소녀의 몸을 가리듯 앞으로 다가왔다.

여인은 갑자기 나가 자빠지듯 덜컥 주저앉으며 깔깔 웃어대었다.

그것은 마치 장난꾸러기 선머슴 아이가 진창을 철벽철벽 걸어 남
에게 함부로 흙탕물을 튀기며 좋아나 하는 것 같은 태도였다. 남에게
흙탕물을 튀기는 자신이 더욱 슬한 흙탕물을 뒤집어쓰게 되는 무모
한 자학적(自虐的)인 쾌감——

“하하…… 와 내 말이 거짓말인교? 하하…….”

“하모 연애도 좋고 사랑도 좋지, 그렇지만 배가 고프른 아무것도
몬하고말고.”

다짐이나 하듯이 또 중얼거리며 눈물을 씻는다.

“당신 주인이 있소?”

내 옆줄에 앉았던 까미머리 부인이 때는 지금이라는 태도로 말을
붙였다.

“주인요? 아이고, 주인이 있으면 이렇겠소.”

“돌아가셨오?”

“모르지요, 일정 시대 징용인가 먼가에 끌려나가 고만이니까요.”

“…….”

“시집온 지 석 달 만에 아이고!”

노래나 하듯 말하고 한숨을 쉰다. 그러나 너무 호들갑스러운 한숨
이라 따분하다는 실감이 오지 않는다.

까미머리 부인이 덤비듯

“여보셔요, 당신은 지금 대단히 불행해요——.”

“알긔어라, 누가 행복하다 겠소?”

“아니 당신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의 당신에게는 구원이 없으니깐.”

“머라카노?”

“예수 크리스트를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머라꼬요?”

“아아 주의 사랑은 바다와 같습니다. 서슴지 말고 주께로 가세요. 마그달라의 마리아에게 뺏어졌던 사랑의 손은 당신에게도 또 뺏어질 것이요…….”

“와 이렇게 떠들어쐈소?”

여인이 소리를 꺾 질렀다. 까미머리 부인은 상대가 딱딱하니만큼, 더욱 열이 오르는 모양이다. 갈라진 음성이 열광적으로 높이 떨리며

“뉘우치세요, 주 앞에 참회하십시오, 무서운 최후의 심판의 천사의 나팔소리가 울리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의 가책을…….”

“온 무슨 소리를 하는지요. 사랑이라카드니 이분엔 또 지옥의 가책이라카니.”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꼬? 마이소. 나는 그런기이 식성에 안 맞아서요, 널로 좋아한다꼬 좋은 데 보내고, 널로 좋아 안한다꼬 지옥 보내고. 아이고, 예수만 사정뽕이구먼요.”

“오오 무서운 말을—— 그렇지만 주의 영광과 사랑은 주를 것처럼 확대하고 거역하던 바울까지 그의 충실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눈의 비늘을 떼어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에 빠집니다.”

“시끄럽소.”

“이 세상은 짧습니다. 뉘우치지 않고 주께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을 마친다면 오, 무섭습니다. 멸망합니다.”

“흥.”

까미머리 부인은 열중하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다.

“떨망합니다, 떨망합니다.”

“조용히 하십시다.”

뒤에서 누구인지 소리를 질렀다.

“예수를 믿잖으면 암만 좋은 사람도 천당 못 가요?”

“.....”

“그라든 나는 싫소. 내 남편이 믿지 않아 지옥에 떨어졌는데 내 혼자 천당 가서 멀 하겠소.”

소녀는 이 말을 듣자 청년의 얼굴을 잠깐 스쳐 본 후 그 맑은 눈으로 여인을 가만히 응시하였다.

까미머리 부인은 안타까운 증오를 어린 눈초리로 날카롭게 여인을 노려보다가 다시 한 번 찌르는 소리로 선언하였다.

“떨망합니다, 떨망합니다.”

털 털털 털 — 엔진 소리가 났다. 그새 조수가 부산서 돌아와 수리가 끝난 모양이다.

“세 시에 닿기는 틀렸다. 벌써 한 시니.”

투덜투덜하는 소리가 들렸다.

차는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번째 고장이 난 것은 경주를 앞둔 오십 리 지점에서였다. 첩첩산중에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먼저 빠졌던 바퀴 나사가 제것이 아닌 까닭에 또 빠진 것이었다. 우리는 공복과 피로와 초조에 지쳐 말없이 조는 듯 앉아만 있었다.

회색 넥타이 신사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눈을 감고 있다. 그러나 자지는 않는 모양이다.

여인은 아까와는 뒀판으로 단정한, 어딘지 애수 어린 모습으로 잠잠히 앉아 있었으나 까미머리 부인은 전도를 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소녀는 역시 청년 옆에 앉았는데 아까보다 더욱 가까이 기대다시피 한 것이 조금도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바깥에서

“예 예 좀더 위에, 야 탐 운전사 낭반 수고하십네다.”

하는 금이빨 신사의 음성이 들려온다.

“모두들 내리는 것이 도티요?”

“.....”

운전사가 무어라고 대답하는 모양이다. 이윽고 금이빨 신사가 차 위에 올라와 일단 전부 하차를 해 달라고 권하였다.

그는 먼저 운전사와 자동차부를 면매(面罵)하던 그 격렬한 태도와 같은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아주 반대 입장에 서서 서둘고 있었다. 백팔십 도의 이 타협은 어디서 온 것인가?

두번째 고장에 당황한 운전사가 승객 중에서 제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그에게

“선생님, 어떡하면 좋겠어요?”

한 한마디가 사령(辭令)이 된 듯하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그런 정책을 할 호기심도 없어지고 운전사를 책할 기력조차 없었다.

불행중다행으로 비가 떨어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우두커니 길가에 앉아 수리가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길가 꽤기 시작한 보리 이삭 위에 황혼이 스며들고, 자욱한 보랏빛이 짙은 저녁 향기를 풍기듯 젖어드는데, 어느덧 떨어져 앉았던 사람들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 간다. 같은 목적을 기다리는 같은 틀 안의 사람들인 까닭에 생긴 어느 정도의 친밀감 때문인가?

인생이란 결국 이러한 것, 비약이란 그리 허다히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신작로 위 희뿌옇게 떠 보이는 버스 차체 아래가 불그레하다.

금이빨 신사의 짙은 명암(明暗)을 진 빼드러진 옆얼굴이 크게 움직였다.

“고래 고래, 좀더 밑에!”

그는 웃옷을 벗어제치고 땅바닥에 엎드려 지구를 지는 ‘아틀라스’ 같이 차체를 뼈통기고 있었다.

고장만 나는 버스, 양심 없고 무책임한 운전사——이윽고 금이빨 신사의 몹시 편리한, 고쳐 말하면 손쉽게 갈아입을 수 있는 정의감과 의협심——짧은 시간이나마 이 무책임한 운전수와 위험한 버스에게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무력한 승객들——그 승객들이 그저 ‘승객’이라는 명칭으로만 묶어 버릴 수는 없다는 것, 즉 각자의 생활을 지닌 인간(人間)이라는 것, 이러한 것이 문득 상기되자 나는 쓴웃음이 입가에 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오죽잖은 사상(事象)에서조차 무엇을 추상(抽象)시키려는 내 자신의 슬픈 습성에 대한 중화제(中和劑)라고도 할까——.

자동차 밑 고장난 곳을 비추는 회중 전등불이 점점 붉어 간다.
산기슭 출발에서부터 번져 나온 황혼이 어느덧 둘레에 퍼져 있었다.

(1951. 9.)